



충성대신보



나라를 지켜낸 호국정신, 우리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맞아 호국원 참배 등 다양한 행사 펼쳐



호국보훈(護國報勳)이란 ‘나라를 지키다’의 호국과 ‘공훈, 공로에 보답하다’의 보훈이 합쳐진 말이다. 즉, 나라를 위해 헌신 및 희생하신 분들을 추모함으로써 그들의 공로에 보답한다는 의미이다. 6·25 전쟁 당시 조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호국영웅들이 잠든 곳. ‘호국의 성지’인 이곳 영천에서 장차 대한민국 국방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지·덕·체(智·德·體)를 연마하고 있는 사관생도들에게 6월의 의미는 특별하다.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으로 꽃피운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지켜내고 그것을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사명이 그들 앞

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에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호국안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가졌다.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및 영천 호국원 참배

지난 6월 6일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 위자들은 국립영천호국원 현충분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추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 임종식 경북교육감 등 지역내 주요 기관장들과 국가유공자 및 단체가 참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오프닝 영상을 시작으로 10시 정각에 참석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게 1분간 묵념을 드리는 것으로 추념식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후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모헌시, 추념사와 추모공연, 현충일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충일을 맞아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조국수호 전쟁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인정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장병과 사관생도들이 가슴 속 깊이 새기고 실천해 나갔으면 한다”라고 했다.

현충일 추모행사 참석

6일 교내 충혼탑에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주요직위자들과 자치근무제 사관생도 30여 명, 대구·경북지역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호국영령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묵념 순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조국을 위해 꽃다운 젊음을 바친 호국용사와 모교출신 순직 전우들의 넋을 추모했다. 행사에 참여한 윤서규 생도(56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아니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이 확립된 정예장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6.25 호국안보 주간’ 시행

학교는 6월 19일부터 25일까지를 호국안보주간으로 설정하고 지휘관에 의한 장병 집중 호국안보교육과 호국행사를 통해 학교 전 장병이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비상소집훈련을 시행하고 전적비 정비 및 참배, 주먹밥 취식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과거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회상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 밖에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나라사랑 큰 나무」배지 달기, 현충일 조기계양 및 묵념, 전사자 유가족 시료 채취, 6·25 전쟁 70주년 나라사랑 UCC, 웹툰 공모전 등 다양한 안보 및 홍보 활동을 시행했다.

편집인 고성진

지면안내

- 02 학교소식 | 2020 생도의 날 축제
- 03 학교소식 | 함신익과 심포니송 콘서트
- 04 기획취재 | 국회의원 최춘식
- 05 생도광장 | 훈육대 소개 · 생도양케이트
- 07 오피니언 | 사설 · 총성대 칼럼
- 10 교양 | 건강상식 · 명문가를 찾아서
- 11 동문소식 | 제36차총동문회경기이사회
- 12 발전기금 | 발전재단 소식

사진제공 > 상병 김요한 상병 이규상 이병 변준연

꿈과 열정으로 가득한 축제, 2020 생도의 날

코로나19로 주변을 돌아볼 수 없었던 생도들에게 활력소가 되고 진정한 선·후배로 거듭나는 계기되어

본교는 생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코로나 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생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체육대회, 야외 영화제, 충성문화제 등의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사관생도의 꿈과 열정을 발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첫 행사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4월 25일부터 구기 종목 예선전을 시작으로 5월 1일 최종 결승까지 1주일에 걸쳐 축구, 족구, 발야구, 단체줄넘기, 7인 8각, 줄다리기, 계주까지 총 7종목의 경기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선·후배들이 함께할 시간

이 없었던 생도들은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며 체육대회에 임하였다. 한편, 1주일에 걸친 결전의 결과, 생도 6중대가 종합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영광을 누렸다.

생도 6중대 57기 백지연 생도는 "많은 체육대회를 경험했지만, 군장 달리기와 총기 분해 및 결합 등이 포함된 3사관학교만의 특색있는 계주 시합이 가장 기억에 남고 시종 박진감이 넘쳤다"라고 밝히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체육대회가 끝난 5월 1일 저녁에는 삼겹살 파티를 즐기며 선·후배, 훈육관들과의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두 번째 행사인 야외 영화제는 4월 30일 충용관 앞 성도광장에서 열렸다. 행사



는 봄의 따스한 공기를 만끽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진행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 '1917'을 상영했다. 또한, 영화 상영과 더불어 생도들에게 다양한 메뉴의 간식이 제공되어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하는 즐거움을 만끽하기도 하였다. 57기 이경미 생도는 "이번 야외 영화제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잠시 쉽표가 되는 기회가 되었으며, 야외의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영화 시청을 하게 되니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 행사인 충성문화제는 5월 4일 충성관에서 열렸다. '남들과는 다른 색다른 우리의 문화!'라는 슬로건을 내건 충성문화제는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와 뜨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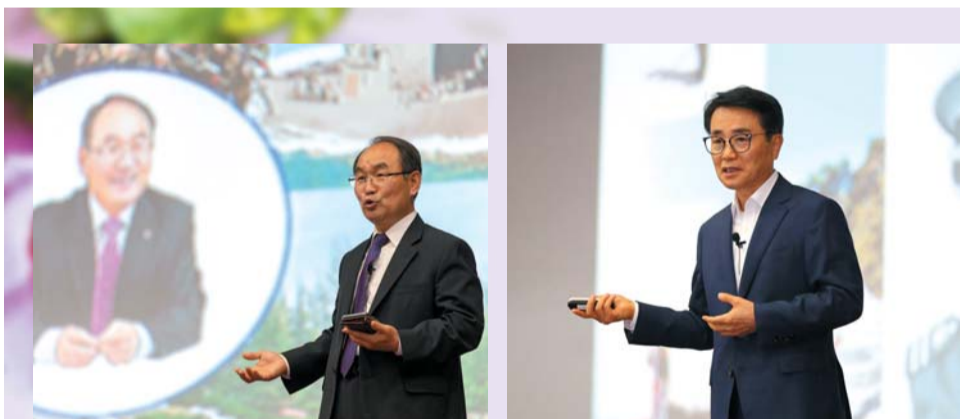
운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발라드, 트로트, 댄스 등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장기를 가진 생도들이 선·후배의 경계를 허물고 함께 무대에 올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생도들이 다양한 재능과 끼를 가지고 공연을 꾸렸고, 7중대에서 참가한 댄스팀이 문화제 1등을 수상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린 '생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의 상황에 생도들에게 활력소가 되었음은 물론, 56기·57기가 그간의 어색함을 털고 진정한 선·후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57기 김별 생도는 "이번 '생도의 날' 행사를 통해 모두 하나가 된 기분 같아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했으며, 56기 권성건 생도는 "57기 후배생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생도대장님과 지휘근무생도들



에게 감사하고, 3사관학교 사관생도만이 만들 수 있는 색다른 우리만의 문화를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계승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6기 기자생도 이선빈
57기 기자생도 이윤택, 이경미



▲ 제29대 학교장 원홍규 장군(6. 2) '도전하라. 큰 꿈을 위하여!!'

▲ 前1군사령관 박종진 예) 대장(5. 22) '강하고 스마트하게'

호국·보훈의 달, 가정의 달 기념 생도특강 및 초빙강연

하사 박정근



▲ <포노 사피엔스>의 저자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최재봉 교수(5. 29) '4차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스마트 인재가 되는 법'



합신익과 심포니 송 'The wing(날개)' 콘서트 개최

행복과 음악을 배달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지난 5월 14일, 학교에서는 새봄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장병들과 사관생도들을 위로하고 힘찬 기운을 북돋기 위한 "NOROO와 함께하는 합신익과 심포니 송 'The Wing' 공연이 실시되었다.

학교 장병 및 군무원, 사관생도 등 1,300여 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공연은 클래식 음악이 낯선 이들에게도 친숙한 주제의 '경기병 서곡'을 시작으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왈츠', 보네의 '카르멘 환타지' 등이 연주됐다. 오케스트라 연주단의 연주와 2019년 tvN '노래에 반하다'에

출연했던 소프라노 손지수의 노래가 어우러져 더욱 알차게 진행되었으며,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前 KBS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였던 합신익 선생의 지휘는 공연의 격조를 높였다. 공연을 관람한 56기 정아란 생도는 "야외에서 공연이 진행되고, 경관이 좋은 호국정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무대가 좋았다"며, "클래식 초보라도 다양한 해설이 있어서 쉽게 감상이 가능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학교는 앞으로도 충성대 전장병과 사관생도들의 정서함양과 사기양양을 위해 문화공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무관 길진규



▲ 지휘자 합신익이 공연을 시작하기 전 관객들에게 오프닝 인사를 하고 있다

간호사관학교 수탁교육 진행 · 간호사관학교장 방문



▲ 학교장(소장 장달수), 생도대장(준장 김호복)이 간호사관학교학교장, 생도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교는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 2학년 생도 189명을 대상으로 하계 군사훈련 수탁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수탁교육에서 1학년 생도들은 개인화기 · 수류탄 · 화생방 등 7과목의 장병 기본훈련을 중점적으로 교육받았으며, 2학년 생도들은 개인화기 · 독도법 · 분대전투 등 전투기술훈련을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특히, 이번 수탁교육기간 중이던 지난 6월 19일에는 국군간호사관학교장(준장 정의숙)과 생도대장(대령 김문주)이 학교를 방문해 수탁교육 중인 사관생도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호사관학교장 일행은 간호사관생

도들이 거주하고 있는 10동 생활관을 방문하여 사관생도들의 생활환경과 여건 등을 살펴보고, 이어서 장애물과 분대전투 훈련장을 방문하여 훈련 중인 생도들과 교관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날 학교를 둘러본 국군간호사관학교장 정의숙 준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정성껏 사관생도들을 교육하고 지도해 준 육군3사관학교의 교관과 지원간부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간호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정예장교양성에 함께 매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김민수

육군3사관학교-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 MOU 체결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

지난 6월 19일 학교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테러 등 보안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전수 받기 위해 (사)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는 정부기관 및 산업체 등의 보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취약점을 해소하고 안정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끊임없는 변화와 도전을 요구하는 현대에 맞는 보안 지원활동과 교육사업 협력 등을 통해, 미래

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처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매진할 것이다.

(사)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 임강수 회장은 "현재 협회는 보안안전관리 분야에서 국가기관 및 군 등에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육군3사관학교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관생도들이 보안 분야에서 전문가적 소양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장(소장 장달수)은 "협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부대 관리 및 생도들의 교육에 잘 반영하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무관 이경희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 임강수 회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가대표사격선수 진중오 학교 홍보위원 위촉



▲ 학교장(소장 장달수)과 진중오 선수가 육군3사관학교 홍보위원 위촉패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본교(학교장 소장 장달수)는 6월 16일 진중오 국가대표 사격선수를 학교 홍보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위촉식은 ▶감사패 전달 ▶학교 홍보영상 시청 ▶중식 ▶충성대교지 인물 인터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향후 연 1회 이상 생도대상 사격 특강 지원과 진중오 선수 개인 SNS 및 대외 활동을 통해 학교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나를 이기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빙강연을 계기로 학교와 인연을 맺게 된 진중오 선수는 이후 '육군3사관학교 55기 졸업 및 임관식' 축하 영상 메시지,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지원자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 홍보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진중오 선수는 사격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단일 종목 3연패를 달성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현재까지 역대 올림픽 한국 선수단 최다 메달(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보유자이기도 하다.

진 선수는 현재 서울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며 방송 및 강연을 통해 자신이 가진 끼와 재능을 나누고 있다.

한편, 진중오 선수는 위촉식 간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들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대표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학교 홍보위원으로서 육군3사관학교와 사관생도들의 멋진 모습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위 이지수



만나고 싶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활력과

행복을 불어넣어주는 **최춘식** 국회의원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956년생이다. 육군3사관학교 15기 출신으로 졸업 후 7년간 군에서 복무했고, 이후 육군 대위로 전역하였다. 전역 후에는 예비군 지휘관(동대장)으로 18년간 포천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정년을 13년 남기고 지방선거에 도전하여 포천군의원 선거에 당선되었다. 포천군의회를 역임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고 정책이 반영되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큰 정의감을 느꼈다.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아부어왔다는 다짐을 가지고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최춘식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Q 기획취재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춘식 의원님 본인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 제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도전 끝에 육군의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육군3사관학교 15기생으로 입교했습니다. 이후 1978년에 소위로 임관하여 12사단에서 첫 소대장 임무를 수행하였고, 마지막은 포천에 있는 6사단에서 예편을 했습니다. 전역 후 조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예비군 지휘관(동대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새롭게 제2의 군생활을 시작하여 약 18년간 재직했습니다. 이후 시·도 의원직을 역임하였고,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Q 학교 출신 중 유일하게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 되셨습니다. 당선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A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가운데서도 투표에 참여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지역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지역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주민과 소통해 활력 넘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과거 군인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

시게 된 계기나 동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 197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에 실패했고 이후 냉동기술을 익혀 전문부사관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육군3사관학교 모집홍보물을 TV를 통해 접했습니다. 저는 그 모집공고를 보자마자 육군3사관학교가 나의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간접함과 절박함을 품고 3사에 합격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필기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저는 당시 17대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3사관학교에 당당히 합격해 사관생도가 되어 장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3사관학교의 생도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과거 장교로 복무하셨던 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여러분이 임관 후 야전에 나가면 부대에 대한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잦은 근무와 피로감의 누적으로 지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자신의 소대원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용사와의 끈끈한 정을 쌓으며 소대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제가 소대장 시절, 한 달 봉급이 6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봉급 6만 원 중 항상 일부는 소대원들과의 회식비로 내놓았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한 초임봉급이었지만 회식을 통해 소대원들과 정을 쌓았던 그 기억들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야전에 나가 초급장교로서 고단한 생활을 하겠지만, 그때마다 소대원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따뜻하고 유능한 장교가 되길 바랍니다.



Q 생도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을텐데 어떤 인생관으로 그 고비들을 극복하셨으며 생도들에게도 인생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저는 개인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관생도 여러분은 확고한 신념을 가슴에 품고 군복을 입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입니다. 국가에 충성을 다하며 군에서 최고계급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각 계급과 보직을 거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충실히 임무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 도중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불의의 사고를 겪어 더이상 군 생활이 힘든 경우에는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장교의 길을 선택했고 여러분이 생도로서 학교에서 수련하는 동안에는 본인의 직분에 충실하고 최고계급으로 진출하겠다는 신념을 갖고 생활했다면 좋겠습니다.

Q 대위로 전역한 이후에 예비군 지휘관(동대장)으로서 18년간 포천에서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험하다고 하는 정치의 길로 입문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A 포천지역에서 예비군 지휘관(동대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대민지원을 자주 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곳에는 인력을 동원하고 수해,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곳에서는 자연재해 극복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을 접하며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정치에 대한 꿈을 키우며 저는 정치를 위해 2001년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정치 생활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도 상당히 많은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는 강했고 그 결과 2002년 6월 당시 포천군의 군의원 선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초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역임하는 동안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해나가며 정책이 반영되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큰 정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낀 이후에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오늘날 국회까지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Q 제21대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실텐데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신 의정활동이 있다면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개개인은 독자적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법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개별소비세와 안전에 관한 법안 발의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 민원을 중점적으로 해결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역임하면서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심을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어떠한 의정활동을 하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않는 변함없는 모습과 기대에 보답하는 정치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학교 출신 선배로서 앞으로 정예장교가 될 생도들에게 격려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책과 분수에 맞는 신념이 바로 군인의 길입니다. 사관생도 여러분은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군 생활 도중 큰 변수가 없다면 군의 최고계급까지 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3사관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이 오늘의 제 모습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의정활동이 안정되면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꼭 말씀나눌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56기 기자생도 박다애, 이선빈

훈육대소개: 1중대 화랑정신을 이어받은 김유신 중대

#1 중대의 역사·상징



1중대는 김유신 중대이다.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왕족 출신이며, 신라시대 유능한 인재들을 모아 조직된 화랑도의 대표적인 화랑이다.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삼국통일을 이끈 영웅이다. 김춘추가 삼국통일 과정에서 외교를 담당했다면, 김유신은 군사적 측면에서 적과 싸워 이김으로써 실질적인 통일을 담당했다. 김유신은 당나라군과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킨 후, 신라까지 지배하려는 욕심을 보인 당나라 군사를 몰아내는 일에도 큰 역할을 했다. 김유신의 업적을 요약하면 신진세력인 김춘추와 연합하여 당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일조했고, 백제·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리던 국지전을 훌륭하게 수행해서 공세전환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불리한 계승 순위의 김춘추를 신라왕으로 옹립하는 군사적 배경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1중대는 이러한 김유신의 화랑정신을 이어받고 화랑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대이다.



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더 나아가 "1중대는 무지개다."라고 한 것은 훈육하면서 생도들을 바라봤을 때 다양한 생도들이 있는 만큼 한 가지 색깔로는 표현하기 어렵다. 서로 다른 7가지의 색깔들이 다 합쳐져서 멋있고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 다양한 생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더 빛나는 1중대이기 때문에 무지개라고 표현을 했다.



#2 중대가



창공을 비상하여라 (으랏차) 독수리야 (빠밤빠)
 임전무퇴하리라(으랏차) 김유신 후예(어이)
 활화산의(어이) 정열을(어이) 가슴에 품고
 전진하는 우리 앞에 승리(승리) 뿐이다
 (투혼을) 투혼을불사르는 젊은 우리들
 필승의 신념으로 굳게 뭉쳐
 화랑의 얼 이어가는 선봉(선봉) 1중대
 (투혼을) 투혼을불사르는 젊은 우리들
 필승의 신념으로 굳게 뭉쳐라
 충성대의 선봉이다 충용(충용) 1중대

Q 1중대를 다른 중대와 비교했을 때 이것만큼은 자랑할 수 있다!

A 1중대는 '가치' 중심의 중대이다. 기본적으로 생도들에게 요구할 때 일방적으로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비록 생도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길로 빠진다고 할지라도 개입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생도들이 틀린 과정을 거침으로써 나중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무엇이 모자랐는지 생각을 하면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중대들보다는 자율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잘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을 부여할 때도 본인이 세운 계획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했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닌, 본인

이 스스로 계획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깨우치고 책임을 짐으로써 스스로 발전해나가는 여건을 잘 보장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Q 1중대 생도들이 생도생활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가기를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A 1학기를 보내면서 느끼는 감정은 '생도생활 2년 동안 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과업을 해나가는 수련의 과정 속에서도 생도들은 성장해나가기 마련이다. 첫 번째로, 올바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뛰어난 장교라도 좋은 인격과 품성을 가지고 있지않다면 그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두 번째로, 뛰어난 능력 또한 마음 못지않게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인격과 더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춰야 임무가 부여됐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인격이 기본이 되고 뛰어난 능력을 함께 지닌 모습으로 성장했으면 한다.

Q 20-1차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1중대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19로 인해서 생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쓰럽지만,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있어서 참으로 대견하다. 특히 56기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4학년 생도답게 성장해나가는 모습이 매우 기특하다. 57기들은 사관학교에 와서 사관생도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끝내고 생도생활의 첫 장이 마무리되고 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과업인 학업을 잘 이겨내고 훈련도 잘 받기를 바란다. 생도들의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생도들에게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보낸다. 무사히 장교로 임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박다애
 57기 기자생도 정용수, 황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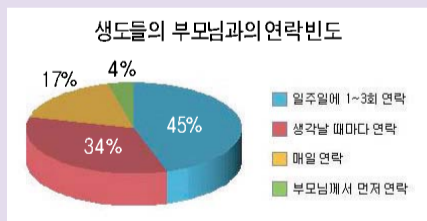
#3 훈육관을 만나다 - 훈육대장 소령 손영민

Q 1중대는 OOO이다. (한 단어로 표현)

A 1중대는 무지개다. 무지개는 고대로부터 '새로운 출발, 희망, 약속'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56기·57기들에게 무지개의 의미가 사관생도로서 성장하고 장교

생도 앙케이트

오늘도 부모님께 연락드렸나요?



2020년 갑작스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번 56·57기 입·진학식에는 부모님들이 오시지 못하였다. 3.4월이 지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충성대신문사에서는 '생도들은 매주 부모님과 몇 번 연락을 하는가?'에 대하여 생도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총 864명이 참가한 이번 투표 결과, 일주일에 1~3회 연락(45%), 생각날 때마다 연락(34%), 매일 연락(17%), 부모님께서 먼저 연락(4%)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많은 생도들이 일주일에 1~3번 부모님과 연락한다고 답했다. 매주 1~3번 연락을 드리게 되는 것은 개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항상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님을 걱정시키지 않으려 하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생각날 때마다 연락이다. 이 항목은 생도들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생활 와중에 실질적으로 매주 연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넣게 된 항목이다. 이 항목이 가장 많은 표를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오지 않아 놀라웠다. 생도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더 부모님과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그 누구보다 효심이 깊은 생도들이라는 것을 이번 투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많은 표를 받은 항목은 매일 부모님과 연락이다. 이 항목이 제일 적을 것이라 예상했다. 왜냐하면 생도들은 오후 17시 이후로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20시 이후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된다. 그렇기에 개인 정비 시간에 부모님과 연락을 하는 것인데, 이것 저것 개인 정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개인의 시간을 나누어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생도들이 선택한 항목은 부모님이 먼저 연락이다. 이 항목을 선택한 생도들은 바쁜 생도생활 간 부모님과 여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든다. 많은 이야기를 부모님과 하고 싶지만, 부모님 또한 직장이 있으시고 생

도들 또한 생도로서 해야 할 임무가 있기에 시간이 맞지 않으면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것은 제한이 된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생도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몰입하고 있는 동시에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을 뜻하는 영어 Family는 Father + And + Mother + I + Love + You '아빠 엄마 사랑해요'를 섞은 말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기초군사훈련 때 보았던 '네가 지금 매고 있는 군장의 무게는 부모님의 어깨보다 가볍다'라는 현수막의 말을 생각하면서 지금 글을 보는 순간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루빨리 코로나-19사태가 끝나고 생도들이 휴가, 외박을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56기 기자생도 송승환 57기 기자생도 신동철



수상한 그녀

어버이날을 맞아 스타들이 SNS에 부모님의 옛 사진을 게시하는 것이 화제가 되고 있다. 스타들과 그 부모님의 젊은 시절은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닮아있었다. 과연 우리 부모님의 청춘은 어땠을까? 우리의 지금과 닮아있을까? 꺾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내 나이였을 때 부모님들도 지금의 나와 같은 생각과 고민을 했을까? 만약 부모님이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부모님이 그때로 돌아가 이루지 못했던 꿈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 영화 바로 '수상한 그녀'다. 아들 자량이 유일한 삶의 낙인 철순 할머니 오말순이 우연한 계기로 20대로 돌아가며 생기는 일들을 그려낸다. 젊은 시절 노래로는 모르는 사람이 없던 말순. 수준급의 노래 실력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자신의 꿈'을 다시 가지게 된다. 반면 가족들은 갑자기 사라진 말순을 찾느라 혈안이 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다. 수상



한 그녀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코미디 영화로 시작해 영화의 끝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누구든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항상 과거를 회상한다. 부모님의 회상에도 분명 꿈과 청춘이 있던 시절이 있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우리 딸·아들이 내 최고의 보물이야"라는 말을 하는 부모님의 마음속엔 본인보다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있을 것이다.

문자로만 이해하기엔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많다. 이번 휴일, 영화를 보고 부모님께 안부도 전하며 부모님의 빛났던 꿈과 청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며 청춘을 즐기는 생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56기 기자생도 권정우, 57기 기자생도 황희진



변신

지은이: 프란츠 카프카
옮긴이: 전영애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벌레가 되어버렸다. 당장 중요한 출장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은 당신의 방문을 두드리며 "출근 안 하니?", "어디 아픈 건 아니니?"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로 당신에게 소리친다. 회사의 매니저는 당신을 찾아와 당장 출장지로 가지 않으면 잘라버릴 것이라며 엄포를 놓는다.

'우연히 벌어진'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여전히 현실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독자로 하여금

진심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당신의 가족들은 벌레가 되어버린 나를 계속 '나'로 봐줄 것인가? 혹은 나의 가족이 벌레가 되어 버린다면 나는 계속 "가족"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은, 그 자체로는 비현실적이지만 가정의 달을 맞아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이번에 읽게 된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 읽힌다. 벌레가 되어버린 마당에 출근을 걱정해야 하는 직장인의 애환을 읽어낼 수도 있고, 가족들의 태도가 변하는 과정과



그 시점에 대해 생각하며 심리적으로 인물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혹은 벌레의 습성을 묘사한 것에 집중하여 읽을 수도 있다. 물론 작가가 의도한 내용이 있겠지만, 소설의 완성도는 작가의 창작과 독자의 해석이 만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카프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작가다. 그는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통해 허무주의가 팽배했던 당대의 시대상을 그려내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의 본업이 보험 회사의 법률 고문이었다는 것과 노동 강도가 높았다는 것,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다는 것과 동생들이 전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것, 19~20세기 유대인으로 살며 독일 사

회와 유대 사회 중 어느 곳에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다는 작가의 생애를 파악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작가와 더 풍부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 책을 재밌게 읽었다면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이어서 읽을 것을 추천한다. 주인공의 어머니가 사망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 또한 실존주의 소설이며, 가족이라는 것이 우연히 형성되지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는 서로를 필요에 의해 사랑하는가 혹은 그저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56기 기자생도 정아란

5부회 소개

명예위원회

명예위원회는 육군3사관학교의 명예를 책임지고 있는 생도자치회이다. 모든 생도들이 명예위원회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생도생활의 규율과 심의를 다루는 위원회 정도로 아는 이들이 많다. 이번 5부회 소개를 통해 명예위원회의 실질적 업무와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생도대의 명예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를 통해 정확히 알아보자.

명예위원회는 명예활동을 주관하는 명예위원장생도와 명예위원장생도를 보좌하는 명예 부위원장생도 2명, 각 중대별로 56기 중대명예위원생도 1명, 57기 중대명예위원생도 1명, 소대명예위원생도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명예심의를 개최하고 명예점호, 수시 명예교육, 방송 명예교육, 기타 명예활동을 통해 생도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고 명예심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실시한다.

충성기초훈련이 끝나고 정식 '사관생도'가 된 이들은 명예·세심의식을 통해 깨끗한 마음으로 명예로운 생도생활을 시작한다. 이후 명예교육/제언, 명예점호를 통해 평상시에 "명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학습하고 생활 속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명예를 다짐한다. 시험 전에 명예시험·다짐의식을 실시해 자신의 양심과 생도로서의 명예를 걸고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된다. 혹여 명예와 금지에 손상 및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여부를 심의하는 명예심의위가 개최된다.

최근에는 명예 교육의 일환으로 '명예에 닿기'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생도들이 말하지 못하는 고충을 들어주고 모범이 될만한 사례는 학교 전체에 알려 생도들의 명예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상담을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마련이다. 이에 명예위원장생도는 "명예위원생도들은 정기적인 상담교육도 받고 있고, 비밀보장 또한 철저하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생도들에게 좀 더 친근한 명예위원회가 될 것을 약속했다. 생도들은 "명예"를 다소 무겁고 어려운 가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기초훈련부터 졸업 시까지 우리의 생활에는 늘 명예위원회가 함께하며, 우리의 명예심을 배양시키고 위풍당당한 태도의 근간을 세워주고 있는 위원회다. 이미 명예로운 문화와 가치는 생도들의 생활에 깊고 넓게 자리 잡고 있으니 더 이상 어려워하지 말고 명예위원생도들의 상담실을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56기 기자생도 윤서규



기고문

사랑하는 나의 장남(長男) 박다에 군(軍)에게



박다에 아버지 (56기 사관생도)

사랑하는 딸아, 오 늘은 갑자기 장녀가 아닌 장남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드는구나. 옛날 청년들을 부를 때, 박군(君), 김군(君) 이렇게 친구나 손아랫 사람을 부를 때 붙이는 호칭이었다. 한자는 틀리지만 네가 군인이어서, 그리고 씩씩하고 늠름하게 생활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자지만 남자 못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녀라기보다는 장남과 같이 든든한 생각이 들기 때문이었다. 어디든 어린 네가 이번에 체력측정에서 특급을 받았다는 소식에 아빠의 기억을 1년 전으로 소환시키는구나. 3사관학교 시험을 앞에 두고 체력을 기르기 위하여 능소화 꽃이 피어있던 럭비 훈련장에서 땀 흘리며 뛰던 모습, 비가 와서 야외 훈련을 못할 때 명령을 들고 23층의 아파트 계단을 뛰어오르던 모습이 아픈 마음을 안고 이런하게 떠오르는구나.

네 목표가 확실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7전 8기라는 말은 좋지만 너를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 없었고, 네가 정한 목표를 향해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주는 네 열정에 아빠는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큰 찬사를 보냈었다.

"위대한 인물에게는 목표가 있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있을 뿐이다. 내일의 일을 훌륭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오늘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는 것이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즐기면서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라"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위대한 지휘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 때부터 곧 생도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란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듯이 네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뛰었던 날들을 기억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날아오를 사랑하는 딸을 믿는다.

아빠는 투병 생활로 인해 약해진 몸 상태를 옛날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단다. 모든 근육과 신경이 경직되어 있어서 운동 자체가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하여 지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운동을 하다 보니, 네 동생들이 어버이날을 기념한다고 잠든 나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못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책상 위에 선물이 있더라. 가족들과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어버이날을 기념해준 우리 딸들에게 고맙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경 속에 있을 때나, 즐거움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

사랑하는 나의 장녀 박다에 군(軍), 사랑한다!

사설

군자삼락(君子三樂)을 생각하다

누가 영천이라고 하지 않을까? 아직 6월 초인데도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내리쬐고 있다. 잠시만 걸어도 온몸이 땀으로 젖고 머리는 뜨거운 태양열로 지끈거린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리도 더우니 여름을 보낼 생각에 머리가 아파다.

하물며, 이 무더위 속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교실이 아닌 야외에서 공수훈련과 유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하계군사훈련에 임해야 하는 사관생도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 한쪽이 아린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지만, 그래도 장교가 되겠다는 사관생도들의 마음가짐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싫다. 무엇보다 장교라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 더욱 그렇다.

장교(將校)를 한자로 풀어 보면 “장수 장자와 가르칠 교”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석하면 가르치는 장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실 어원이야 조선 시대 하급 군관을 호칭하던 용어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하는데, 이것은 징집되거나 소집된 병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임무가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 되었건 모든 장교는 교관이자 교수자라고 할 수 있으며, 가르침을 숙명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친다는 것인가? 당연히 개인 전투기술로부터 전술·전기는 물론이고, 군인으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가치관, 국가관과 안보관 등 군 생활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모두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라고 한다. 그 자신이 실력을 연마하여 유능해지고 능력을 키워야 함은 물론, 부하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며 나아가 통솔하여 전장에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군3사관학교의 임무는 무엇인가? 바로 이처럼 군대의 기간을 이루고, 부하를 지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하고 스마트한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데 있다. 자고로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하였다. 그만큼 후학을 양성하고 자라나는 세대를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국가가 백 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물며, 이러한 백년대계를 실천하는 교육기관의 중요성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옛날 중국 주나라의 춘추전국시대 백가쟁명 중 한 사람이며, 유교의 성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맹자는 군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른바 맹자유삼락

(孟子有三樂)으로서, 흔히들 군자삼락(君子三樂)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이다. 맹자는 군자의 첫 번째 즐거움인 일락(一樂)은 부모구존 형제무고(父母俱存兄弟無故)로서 “양친이다 살아계시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무탈하며 행복한 것”이며, 두 번째 즐거움인 이락(二樂)은 양불괴어친 부부작어인(仰不愧於天俯不作於人), 즉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고, 땅을 굽어보아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인 삼락(三樂)은 득천하영재 이교육지(得天下英才而教育之), 즉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관생도 교육을 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는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인 삼락(三樂)을 그 모토로 삼고 사관생도 교육에 매진해야 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또한 교수의 입장에 있는 사관생도 역시 장교가 됨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육에 대해 스스로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뜨겁게 내리쬐는 폭염도 극복해야 함은 물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판단과 즉시 결심할 수 있는 전술적 식견을 키워나가야 한다. 주저함이나 두려움 없이 주어진 목표와 임무달성을 위해 극한 상황도 극복해 낼 수 있는 진정한 용기를 길러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미래사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식견과 지혜도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사명이며, 맹자가 말한 세 번째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말로만 순국선열들의 일을 잊겠다고 하지 말고, 진정 우리의 내면과 사관생도들의 마음속에 위국헌신의 정신이 깃들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조국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하나뿐인 목숨마저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군인정신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교육과 체계를 통해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변화시킬 때 만이 위국헌신의 군인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군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오늘도 호국정에 앉아 북편에 있는 충훈탑을 바라본다. 과연 우리는 이 호국보훈의 달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이 희생해 가며 지킨 조국, 드높인 학교의 명예를 이어갈 만한 사관생도들을 양성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바라본다. 군자삼락(君子三樂)을 생각하며.....

국방과 워라벨

충성대 칼럼

대위 김인찬(군사교양학처 상담심리학 교수)



최근 3~4년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 영어로는 Work and Life Balance(이하 ‘워라벨’)가 중요한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2017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살펴보면 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의 10가지 세부 개선 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2018년 7월,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워라벨은 더이상 사기진작 차원의 1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임을 상기시켰다.

시간, 탄력근무제, 자녀돌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적극 시행으로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정책들이 시행되다 보니 일부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 복지보다는 임무가 우선이라는 인식에 따른 걱정이다. 더구나 저출산과 인구절벽으로 병역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며 안보의 공백 또한 예상되기에 이러한 우려는 충분히 수용하고 정책 시행 전 심사숙고 해야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워라벨의 본질은 첫째, ‘일은 적게, 쉬는 시간은 많이’가 아니라 관행적인 미덕으로 여겨졌던 야근과 주말 출근 등 초과업무의 관행을 바꿔 ‘일하는 시간에는 효율과 성과 있게 하고, 쉬는 시간은 알차게 보내자’이다. 둘째, 워라벨은 ‘일과 삶을 정확히 55로 맞추자’가 아니라 일 또한 삶의 일부이니 삶에서 중요한 가치인 행복, 가정, 여행, 자기계발 등과 일을 조화시키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군인에게 있어 국가의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군인이 과연 가정보다 훨씬 큰 단위의 국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주 52시간 근무제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을 찾음으로 인해 가정 구성원 간의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자료가 발표되고 있다. 또한, 카드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전과 비교하여 여행, 스포츠 레저, 자기개발 업종의 카드결제액이 평균 5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워라벨이 개인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닌 내수진작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육군도 VISION 2030에서 복지정책의 하나로 워라벨을 명시하고 있다. 육군본부에서도 ‘효율과 성과중심’의 업무문화 형성을 위해 지정시간 PC-Off제도, 장기휴가, 조기퇴근의 날 등 일과시간 업무집중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을 체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정책(육아

가? 라는 물음에 이제는 국가가 답할 차례이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 ‘일은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일이 삶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럽게 블렌딩(Blending)되어야 한다’고 했다. 심리학적으로 일터에서의 사회적 자아와 삶에서의 개인적 자아를 분리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국방도 마찬가지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군인이 임무수행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며, 임무수행을 성과 있게 하는 군인이 개인적 삶도 풍족하게 누릴 것이다.

워라벨은 더이상 편의를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임무를 삶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삶 속의 일부로 받아들여 임무에 더 몰입하게 해주는 필요충분조건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文)과 무(武)의 겸비를 기대하며

사회 저명인사 칼럼

남성 옥(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젊은 군인을 만나는 일은 항상 즐겁다. 젊음의 패기와 기백을 보며 역설적으로 인생 후반기인 필자는 힘을 얻는다. 오늘 여러분의 충성대 대선배이며 평소 존경하는 문성묵 장군님(13기)의 추천으로 사관생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감흥을 느끼게 한다. 평소 각종 언론 기고 등으로 상당한 분량의 글을 집필하는 필자지만 충성대 여러분들과의 만남은 특별하다.

평소 대학의 강의실에서 졸업 후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직업군인의 길을 강추한다. 과거 미국 유학시절과 일본 자위대 방문 등 선진국에서 군인의 삶은 명예와 복지가 최상급이었다.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길은 여타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매력과 금지가 있다. 여러분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제 자존감 있는 군인으로서 맡은바 국방의 의무에 헌신하는 사관생도들에게 작은 주문을 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군문을 떠나는 날까지 체득해야 할 과제는 문(文)과 무(武)의 겸비다. 이미 충성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있으니 필자의 소망은 기우일 것이다.

무는 충성대의 교육으로 충분한 만큼 필자는 문의 함양을 위해서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혹시 충성대에서 이미 필독도서로 지정되어 생도들이 읽었다면 필자와 여러분은 동일한 독서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미국 중령 출신 T. R. 페렌 바크(T.R. Fehrenbach:

기강은 평소에 훈련에서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기강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1925~2013)의 저서인 「이런 전쟁(This Kind of War)」이다.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 재학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학업을 중단하고 육군 공병대 부사관으로 참전하여 중위로 전역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72전차대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한반도 전선에서 소대장과 중대장을 거쳐 중령으로 전역했다. 하지만 그는 책 어디에서도 참전 사실에 대해 한 줄도 언급하지 않고 전쟁 전체를 담담하게 제3자의 관점을 오가며 서술했다. 그는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

러운 전쟁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한국전쟁이 휴전한지 10년이 지난 1963년 출간된 이 책은 미 육군사관학교와 육군지휘참모대학의 필독서로 지정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시작하는 서문에서 ‘기강(discipline)’을 우선 언급한다. 전장(戰場)에서 기강은 자제력이다. 생사를 가르치는 전장은 득점에 올인하는 축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전장에서는 무거운 철모를 함부로 벗으면 안되며 수통의 물은 항상 남겨두어야 하고, 명령에는 최선을 다해 복종해야 하는 등 기강은 전장의 규칙이다. 하지만 기강은 평소에 훈련에서 몸에 체득이 되어야 한다. 훈련되지 않은 기강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또 다른 한 권의 책은 김훈의 장편소설인 「칼의 노래」다. 한국문학에 비락처럼 쏟아진 ‘축복’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2001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한 이 책은 국가의 운명을 짚어준 당대의 영웅이자, 정치 모략에 희생되어 장렬히 전사한 명장이 김훈의 생애를 그려냈다. 아군이란 없었던 한계 상황에서 무너지려는 자신을 끝없이 일으켜 세워야만 했던 김훈의 고독하고 불안한 내면을 김훈 특유의 문체로 예리하게 묘사한 수작이다.

공동체와 역사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

에 선 고위층이 지녀야 할 윤리, 문(文)의 복잡함에 대별되는 무(武)의 단순미 등을 미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순신은 초급 장교로 함경도 국경지대인 두만강 녹둔도에서 근무할 때 ‘함경도일기’를 남겼다. 임진왜란 중에는 ‘난중일기’를 남겼다. 그의 기록 정신은 치열하다. 그는 빠뜨리지 않았고 중언부언하지 않았다. 이순신의 문장은 수사를 배제한다. 그는 매일매일 바다의 날씨를 살폈고 적과 아군의 행편을 기록했다. 그의 글은 무인다운 글쓰기의 전범이라 할 만하다. 사관생도들이여 적자생존을 명심하자. 기록해야 대응할 수 있다.

부실한 군사를 보유한 장군의 전쟁터는 항상 내가 선택하지 못하고 적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순신은 내면의 삼엄함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삶의 무의미와 죽음의 아수라를 칼의 힘으로 돌파하였다. 선부른 울음을 지양하고 절제된 슬픔을 내면에 응고시켜 승화시키는 장군의 고독은 울림이 결코 적지 않다.

삶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은 일상에서 느끼는 바이지만 이 소설은 삶의 중후장대(重厚長大)함을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그 진중함이 외부로 요란스럽게 표출되지 않고 내면세계에 머물러 있어 무게감의 깊이를 더한다. 두 권의 책은 초급 장교로 군생활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황잡한 세상과 부딪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강건한 독백을 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독자투고

소위 고명 환예56사단 제219보병연대 기동중대 소대장



도서 ‘해빗 HABIT’에는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요즘 좋은 습관을 갖고, 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와서 되돌아보면 사관생도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을 배우고 유지하는 것, 일과 후에 늦게까지 연등하여 공부하는 열정,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의견을 말하는 자신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가짐 등 모든 것들이 모여서 습관을 만들게 되었다.

물론, 우수한 성적으로 상(보병학교 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거나 성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소위들과 똑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신입장교일 뿐이다. 다만, 후배 생도들이 임관 후 첫 단추를 기본 좋게 끼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작성해 본다.

과거 나의 생도 생활을 돌아해보면 모범적인 생활은 아니었다. 성적도 뒤에서 새는 것이 더 빠르고, 주요직위는 해본

적 없고, 규율위반으로 퇴교위기까지 겪어왔다.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수한 동기들에게 많은 열등감을 느끼는 생활을 해왔고, 그렇기에 ‘무사히 임관만 하자’라는 생각으로 의미 없는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4학년이 끝나갈 무렵, 겨울 휴가 중 혼자 여행을 하다가 문득, 기

바쁜 일상 속에서 웃음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만의 보물찾기와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나가길

초군사훈련 수료 때 선배 생도가 했던 “생도 생활은 보물찾기다. 생활을 하면서 2년간 많은 보물을 찾아가라”는 말이 생각났다. 그 순간 ‘나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보물들을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열등감, 질투심과 같이 좋지 않은 것들뿐이었다. 이렇게 생활을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쉬웠고 남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보물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인 이른바 회복탄력성(Resilience)이 생기게 된 것이다.

나는 바로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휴가 복귀 후에는 실천에 들어갔다. 우선 2년 동안 밀린 나의 전술 노트를 만들어나갔다. 군사용어를 익히기 위해 영어단어 외우듯 군사용어집을 들고 다녔고, 훈련과 관계된 모든 것을 수없이 읽고 분석했다. 그렇다 보니 평소 좋아하던 동기들과의 풋살마저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자주 가지 않았던 도서관도 새벽 2시까지

나 찾아서 임관 후 보병학교에 그대로 가져갔고, 부지런하게 생활하다 보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곧 임지로 떠나면서 후배 생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는 것”이다. 후배 생도들은 정말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다. 지금 생도 생활 중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혹은 좋은 성적으로 인정을 받아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는 후배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 없이 힘든 생도 생활을 보내고 있는 후배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상관없다. 지금부터 변화해보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만의 보물찾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후배들이 많은 보물을 찾고 좋은 습관을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55기 소위들의 마음을 모아 대표로 전한다.



남아서 열심히 공부했다. 코로나로 인해 출타가 제한되었을 때도 나만의 공부시간이 생겼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임관 전 3개월 동안의 시간을 오로지 나의 보물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을 들였고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열정도 키웠고 어떤 일을 하든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보물들을 하나하

유엔참전국기념비 답사기 2화
포천 태국군참전기념비

“리틀 타이거”, 태국대대의 활약을 기억하며

태국은 19세기 격동의 시대를 지내오는 동안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주권을 잃지 않았던 국가다. 오랜 세월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이겨낸 그들의 용맹함은 6·25 전쟁 중에도 크게 빛을 발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타일랜드라고 불렀던 태국의 참전사를 살펴보기 위해 포천에 있는 ‘태국군참전기념비’를 찾았다. 포천시를 가로지르는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있는 태국군참전기념비를 만나게 된다. 계단을 올라가 기념비를 마주 서면 그 웅장함에 한번 놀라고, 오른쪽에 짙은 밤색의 태국풍 불당에 또한 번눈길이 간다. 이 건물은 태국 국왕의 지시에 따라 태국재향군인회가 본 건물을 개축하여 한국 정부에 이양한 것으로 안쪽에는 불상이 놓여 있다.



▲ 태국군참전기념비 전경(왼쪽), 태국풍 불당의 모습(오른쪽)

6·25전쟁 직후 유엔이 회원국에게 대한민국 지원을 호소하자 이에 가장 먼저 호응한 나라가 바로 태국이다. 태국은 1950년 6월 30일, 자국산 미곡으로 한국에 식량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유엔에 통고한 데 이어 국회의 동의와 국왕의 승인을 받아 1개 여단 규모의 지상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태국 정부는 전투부대의 파병을 결정하지마자 황태자 ‘피싯디사퐁’ 소장을 태국 원정군사령관에 임명하고,

본격적인 참전 준비를 시작하였다. 태국 국방부는 처음에는 1개 여단 규모로 파병단을 생각했으나 국내외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대대 규모로 축소 조정하였다. 또한, 지상군에 이어 해군부대의 파견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프리깃함 2척과 수송선 1척으로 이루어진 해군파병부대가 편성되었고, 이들은 10월 22일 지상군 1개 대대 병력과 적십자 의무요원들을 태우고 방콕항을 출항하였다. 11월 7일 부산에 도착한 태국대대는 11월 26일 평양으로 진주하기 시작했고, 12월 6일 개성지역 경계 및 철수엄호를 맡았다.

태국군 장병들에게 가장 큰 적은 한국의 한파였다. 1950년 한국의 겨울은 이례적인 한파가 몰아쳤고, 열대지역에서 온 태국 장병들에게는 한국의 추위는 상상



이상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상급부대는 이들에게 최우선으로 방한 장비를 배부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추위로 인한 질병과 동상환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전투력에 심각한 손실이 생기게 되었다.

1951년 1월 유엔군 전선의 후방지역 각처에서 적의 게릴라들이 준동하자 태국대대는 대유격작전에 투입되었다. 소백산맥의 험준한 고지군을 오르내리며 지역경비부대들과 협조하여 유격대 토벌을 시작하

였다. 이후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자 태국대대 역시 반격작전에 투입되었다. 태국대대는 춘천화천지구 진격전, 연천율동지역 방어전투, 금화지구전투 등에 참전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들의 진가가



▲ 흑한 속에 수색 정찰하는 모습(왼쪽), 정렬 중인 태국 장병들(오른쪽)

가장 두드러진 것은 1952년 11월에 벌어진 포크 칩(pork chop) 고지전투에서였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크 칩 고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받은 태국대대는 중공군의 집중포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지를 사수하였다. 또한, 이들은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자 포효하는 호랑이들처럼 용맹하게 싸웠고, 악전고투 끝에 중공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전투는 대대가 참전한 이래 가장 치열한 전투로써 적의 시체 50여 구가 확인되었다. 안타깝게도 태국 장병들도 8명이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쌍방의 포격으로 폐허가 된 포크칩 고지를 방문한 미 제1군단장과 미 제2사단장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격전을 펼친 태국대대 장병들의 용맹함을 치하하였다. 이 전투에서 태국대대는 그들의 용맹성을 인정받아 ‘작은 호랑이(Little Tiger)’라는 애칭을 받았다.

태국군은 6·25전쟁에서 129명이 전사 또는 사망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했으

며, 5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러 전투에서 투철한 군인정신을 보여준 태국대대는 대한민국 을지무공훈장 7회와 충무무공훈장 26회, 미국 은성무공훈장 13회와 동성훈장 25회 등 수많은 국내외 훈장을 수여받았다.

최근 우리나라를 다시 찾은 유엔참전국 인사들은 전쟁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고 크게 감격했다. ‘원조가 필요한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크게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싸워준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지

원 덕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에게 힘을 보태준 그들을 오래 오래 기억해야 할 것이다.



▲ 태국군의 복식 및 깃발 전시

참고자료

- 『6·25전쟁과 유엔군』(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5)
- 영원한 동반자, 한국과 태국-태국군 6·25전쟁 참전사(국가보훈처, 2010)



※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더욱 다양한 정신전력 교육용 콘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jungsin3560>
글/사진. 허호영(국방정신전력원전문연구원)

지역문화탐방 8

한국의 미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을 방문하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지이자 한국의 미와 전통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예절과 선비의 고장 안동을 방문하였다. 안동은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있는 하회마을,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도산서원, 환상적인 야경을 볼 수 있는 월영교 등 관광지뿐 아니라 안동찜닭, 안동간고등어 등 맛있는 음식 또한 맛볼 수 있는 곳이다.



▲ 안동 하회마을

안동하회마을은 기와집과 초가가 오랜 역사 속에서도 잘 보존된 곳이자 풍산류씨가 600년간 대대로 살아온 한국의 대표적인 동성 마을이다. 하회마을은 2010년 7월 브라질 수도에서 개최된 제3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경주 양동마을과 함께 우리나라의 열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하회마을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삶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는 생활공간이며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조상, 한국인의 삶 자체를 볼 수 있다.



▲ 도산서원 현판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경서로와 경북대로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달려 도착한 선비의 품격과 퇴계 이황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도산서원이다. 도산서원은 조선 선조 7년에 건립된 곳으로 퇴계 이황의 위패를 모시고 후손과 제자들이 향사하며 후학을 양성해 온 곳으로 한국문화의 성지라고 불린다. 퇴계 선생의 가르침이 남아있는 곳인 도산서원의 건축물

들은 퇴계 이황의 성품처럼 간결하고 겸소하다고 느껴졌으며 각 창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그림을 걸어둔 것 같았다.



▲ 월영교

도산서원에서 20분가량 퇴계로를 따라 안동시내로 향하여 해지기 전 도착한 곳은 월영교였다. 월영교의 유래는 부부의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간직되어있는 나무다리이며 먼저 간 남편을 위해 머리카락을 뽑아 한 켄레의 미투리를 지은 지어미의 애절하고 숭고한 사랑을 기념하고자 미투리 모양을 본떠 다리를 지었다고 한다. 400여 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아내의 절절함이 어린 월영교.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가족들과 대화를 하며 걸으며 사진찍기 좋은 곳이다.

절절한 사랑의 여운을 남긴 채, 가족들과 식사를 위해 10여 분 정도 자가용을 타고 구시장과 신시장으로 이동하였다. 금강산도 식후경인지라 여행에서 먹거리를 빼놓을 수 없다. 안동에서는 구시장과 신시장을 빼놓고 안동 맛집을 논할 수 없다고 한다. 이 두 시장은 길 하나를 두고 색다른 특징을 갖는다. 구시장이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이라면 신시장은 젊은 층의 활기로 가득하다. 구시장에 들어서면 찜닭의 본고장답게 30~40개의 찜닭집이 즐지어져 있다. 찜닭 본래의 맛부터 이색적인 찜닭집들이 있어서 입맛에 맞는 곳을 골라갈 수 있다. 신시장에는 오고가게 청년몰이 있다. 그 내에는 분식, 돈가스, 햄버거, 디저트 등 젊은 층을 노린 음식들이 많다. 또한, 청년사업가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맛집들이 많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음식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사로잡는다. 이처럼 구세대와 신세대, 옛것과 새로운 것, 모두를 아우르는 명소들과 음식들이 있는 안동을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

56기 기자생도 최정운
57기 기자생도 장석수, 지하은

올여름 미리 알고 준비하자!

건강상식

국군의무학교 세이브센터야전응급처치교관대위 최길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여름 6~7월은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거나 높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특히,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예보이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소규모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가운데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니 미리 온열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감시체계에 따르면 2020년 현재까지 신고된 온열질환 환자는 160명이며 4일은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대구·경남·경북 지역에 발효되었다. 벌써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다. 더운 환경 외에도 바람이 잘 불지 않고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곳에 있거나 운동강도가 높은 훈련 상황, 비만, 탈수, 음주, 수면 부족 등도 온열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증상별로 온열질환을 구분해보면 여러 개의 붉은 뾰루지 또는 물집이 잡히는 열발진(땀띠)과 손,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처럼 경미한 증상도 있으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과 팔, 다리 근육 등에 경련이 일어나는 열경련이 있다.

특히, 열사병은 장시간 더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있게 되면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기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중심체온이 40℃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며 이때에는 땀이 나지 않아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적이다. 이는 온열 질환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로 상승하게 되며 이때에는 땀이 나지 않아 뜨겁고 건조한 피부가 특징적이다. 이는 온열 질환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적절한 응급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온열질환자의 10명 중 8명이 야외에서 발생하는 만큼 폭염특보 때는 야외훈련을 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온도지수를 측정하여 야외활동 허용 기준에 따라 행동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젊고 건강한 성인들에게서도 온열손

상이 생기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우리의 몸은 땀과 호흡을 통해 열을 증발시켜 체온을 조절하는데, 훈련 등의 신체활동이 많고 장구류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피부를 통해 땀을 발산하지 못해 체온을 낮추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훈련 중에는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을 피해야 한다. 또한, 당도가 너무 높은 청량음료나 과일음료는 체내의 수분흡수를 방해하므로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적당히 시원한 물 섭취를 권장한다. 탈수가 오면 온열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수분을 적절히 보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온열질환 예방법이다.

그렇다면 온열손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시 태양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그늘로 옮긴 뒤 장구류나 벨트, 옷 등을 느슨하게 풀어줘야 한다. 땀 발산을 통해 체온을 낮추기 위해 환자의 몸에 물을 뿌리거나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열 증발을 촉진해야 한다. 만약 열음이 있으면 얼음주머니로 만들어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열 발산이 취약한 신체 부위에 갖다대어 체온을 낮출 수 있다. 의심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하지만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이 의심되므로 초동조치를 취한 후 신속히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코로나로 모든 국민들이 지친 요즘, 무더위가 오기 전 예방법을 잘 알고 대비하여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시기이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군부대에서도 장병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명문가(名門家)를 찾아서

㉨ 화산유격장의 유적지를 찾아서

코로나라는 예기치 못한 괴질로 인해 신문사의 취재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명문가를 찾아서' 6월호에 실릴 내용은 취재까지를 마쳤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번 '명문가를 찾아서'는 특정 가문이 아닌 지역으로 대상을 변경하였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충성대인이면 누구나 하나쯤 추억을 갖고 있는 화산유격장이다. 화산유격장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화산유격장 내에 숨겨져 있는 유적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이번 호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 화산산성(華山山城)

우선 화산유격장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산성(華山山城) 자체가 바로 유적지이다.

다. 1709년(숙종 35년) 외적을 막기 위해 지어졌으며, 현재 위치는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이다. 축성자는 당시 병마절도사로 있던 윤숙(尹淑)장군이다. 화산산성은 1984년 3월 지방문화재 제47호로 지정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화산산성 건립 당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윤숙 장군의 사비와 승려들의 시주로 축성하였던 점이다. 더욱이 우리 선조들의 호국정신이 그대로 남아있는 성지에 우리 육군3사관학교의 유격장이 있다는 것을 과연 우연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다.

안타까운 것은 화산산성을 쌓던 중 계속된 흉년과 윤숙 장군이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진출을 가게 되자 화산산성은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현재는 흥례문에서 수구분까지 약 200m 정도가 보존되어 있는데, 당시 건축기술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화산산성, 윤숙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로는 화산산성 건립 당시 윤숙 장군의 호인 '괴헌(槐軒)'을 따서 만든 정자인 '괴헌정'이 있는데 건립 당시 지휘, 통제를

하던 장소였던 것 같다. 또한, 윤숙 장군의 축성 당시 도움을 주었던 승려 혜휘와 두청이 건립했다는 '군수사(軍需寺)'가 있는데, 그 이름만으로도 절의 건립배경이 설명된다. 이후 영조 5년(1729년)에 윤숙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윤숙 장군의 비 또한 화산산성, 윤숙 장군과 관련된 유적지이다.



▲ 괴헌정



▲ 군수사(軍需寺)

그 외에 조선시대 명재상이자 임진왜란을 극복한 호국영웅인 서애 류성룡 선생과 관련된 유적지도 화산유격장에 있다. 화산유격장 내에는 '옥정영원(玉井靈源)'이라는 샘이 있는데, 이는 중국 화산의 대화봉의 옥정을 동국(대한민국)의 화

산에 그대로 옮겨온 곳이라 생각한다. 류성룡 선생이 이곳 화산을 지나다가 옥정영원의 샘물을 마시고 시흥(詩興)에 겨워 작성한 시가 바로 7언절구이다.



▲ 화산유격장괴헌정 옆에 위치한 '옥정영원 샘가 비위에 새겨진 '서애 류성룡' 선생의 '7언절구'

誰向華山欲問田
누가 화산에 밭을 구하려 하는가?
仙源從此有因緣
선선의 근원이 여기서 비롯되었네
諸君借我雲梯路
여보게! 나에게 구름사다리를 빌려주구려
玉井秋風採碧蓮
옥정에 가을바람 불면 연을 따려 하나니..

시대를 풍미한 거유(巨儒) 풍취가 느껴진다. 지금부터 5년 전 풍산 류씨 집안에서 이곳을 찾는다가에 내가 직접 안내한 경험이 있던 장소이기도 하다. 학교 영내에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소중한 유산들이 숨겨져 있다. 이제라도 학교, 문중,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소중한 유산들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중령 최재호

제35차 총동문회 정기 이사회 개최

지난 5월 12일 제35차 총동문회 정기 이사회가 내빈, 동문회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동문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합된 노력으로 어렵게 당선되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국가발전과 동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감사함을 표시했다.



▲ 제35차 총동문회 정기 이사회 기념촬영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 정기 이사회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식전행사에서는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최춘식 의원(3사 15기, 경기 포천·가평)의 환영식을 가졌다. 동문회에서는 최춘식 의원에게 꽃다발과 자랑스러운 3사인상을 수여하였다. 최춘식 의원은 "여러 동문들의 단

이어서 진행된 제35차 정기 이사회에서는 제15대 총동문회 임원 위촉장 수여, 안건심의, 연락 및 강조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행사가 연기·중단되는 등 제한이 있었으나, 건강관리에 유념하며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온 모두에



▲ 총동문회장이 최춘식 의원에게 꽃다발과 '자랑스러운 3사인상' 기념패를 수여하고 있다.

게 감사드립니다"며, "특히 제15대 임원편성 및 이사회를 4개월 만에 개최했으니 임명된 신입 임원들께서는 총동문회 활동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말했다.

3사 총동문회

동문회 발전기부금 전달 및 나눔 행사

31기 동문회, 동문회관 건립을 위한 발전기부금 전달(2020.6.2)



▲ 31기 동문회가 동문회관건립을 위한 단체투자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하는 모습

동문회 발전기부금 전달 및 나눔 행사

26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개최(2020.5.27)



▲ 26기 동문회는 불우이웃 및 6·25 참전용사들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총동문회를 통해 서울 재향군인회 측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현충시설을 찾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발걸음이 잇따랐다. 총동문회는 지난 6일 서울 동작동에 위치한 국립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헌화하고 참배했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제한적 개별행사를 진행하고 사전에 현충원에 승인을 얻어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했다. 한동주 총동문회장은 "3사 총동문회를 대표해 선배 전우들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총동문회장 한동주(14기), 명예회장 이양수(1기), 정인해(12기), 성우회장 김남권(12기), 운영위원장 김주원(37기), 상임고문 오준섭(5기) 등 총동문회 주요임원진 20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순국선열·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각 기수 및 지역 동문회(대전, 부산, 영천 등)에서도 현충일 행사를 개최하여 호국영령에 참배하고 국가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여한 총동문회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56기사관생도 부모모임 1차 정기총회 개최

지난 5월 30일 총동문회관에서 56기 부모회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6기 사관생도 부모모임 1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행하였다. 토의 이후에는 총동문회장에 비역 중장 한동주(14기) 및 3사모 회장 이철성(9기) 등을 초대하여 군 생활 경험담 청취와 일문일답을 통한 대화의 장 마련으로 큰 호평을 얻었다.

1차 정기총회에서는 전국 부모회 조직 운영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토의를 진

3사 총동문회



▲ 56기 사관생도 부모모임 1차 정기총회의 모습

제55보병사단장(소장 배한국, 3사 25기) 이·취임식 참석



▲ 총동문회장단이 제55보병사단장(소장 배한국)에게 지휘봉을 전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0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 4. 17 ~ 6. 19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78억 8,000만원(2020.6. 19 기준)

■ 단체/ 우인

국민은행 영천지점 1,000 (8,700), 은혜사 2,000 (1억4,000)

■ 3사관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軍기부

정한기(육사#39) 283, 최원규(육사#44) 213, 김호길(육사#48) 239, 김태욱(육사#51) 216, 두석주(육사#51) 2148, 이우진(육사#54) 2150, 박기홍(육사#55) 2110, 조상근(육사#56) 2124, 변용성(육사#58) 289, 손창호(육사#58) 1157, 이귀현(육사#58) 283, 이주실(육사#58) 268, 김대영(육사#59) 2152, 김진찬(육사#61) 2153, 홍희중(육사#61) 2185, 이한우(육사#63) 2113, 오민경(육사#66) 2128, 오범진(육사#66) 216, 홍인재(육사#66) 218, 문준호(육사#67) 1133, 이찬우(육사#68) 228, 권성진(육사#68) 216, 한덕수(학군#28) 285, 고성진(학군#31) 219, 구희곤(학군#32) 2192, 이두진(학군#35) 216, 곽홍렬(학군#37) 2118, 송경재(학군#37) 2112, 김재원(학군#43) 2140, 김광윤(학군#44) 2138, 이종민(학군#44) 1111, 정우람(학군#46) 216, 김태룡(학군#48) 2130, 이세훈(학군#48) 2111, 홍현신(학군#48) 219, 김민범(학군#49) 2112, 나상철(학군#49) 213, 박동선(학군#49) 2114, 윤정훈(학군#50) 2115, 최재호(학사#29) 2112, 최용식(학사#33) 2114, 이준수(학사#35) 2196, 장혜익(학사#46) 1112, 윤경주(학사#46) 212, 김호근(학사#49) 1114, 임도현(학사#54) 2191, 구주현(학사#55) 2114, 박수영(학사#55) 216, 성현애(학사#55) 2134, 전여울(학사#58) 2142, 심정현(학사#58) 2122, 김소현(여군#46) 217, 강소영(여군#49) 1124, 이희정(여군#49) 2125, 이수영(여군#51) 111, 김형태(단기#22) 2142, 김세영(단기#28) 1130, 강찬영(군중#61) 217, 정영진(교수#18) 1119, 최윤정(간호#38) 2127, 송소연(간호#38) 218

▶ **부사관**: 이각우 2142, 전경익 2156, 진장철 2161

▶ **군무원**: 김인수 2124, 류재운 2118, 안영주 2130, 양성우 2152, 유정호 215, 정혜란 219

■ 졸업·재학생도 부모

▶ 졸업생 부모(졸업기수관계)

김종국(41 김성준 부) 10(330), 최병영(42 최익기 부모) 12(12), 김종순(45 김성수 부) 21(26), 김정숙(45 배현규 모) 12(152), 조경혜(45 황정태 모) 5(735), 윤용상(48 윤희웅 부) 2(58), 성동모(50 성열환 부) 2(176), 안순봉(51 박상우 모) 20(250), 윤우상(51 윤형민 부) 2(76), 김현매(52 오치원 모) 2(34), 이선화(52 변정현 모) 5(550), 이영미(52 황성규 모) 3(253), 정정화(52 조강현 모) 1(327), 박일심(53 정필승 모) 4(98), 이영빈(53 오경철 모) 2(32), 조정숙(53 유영빈 모) 4(96), 황경부(53 황순범 부) 20(510), 윤명남(54 이지호 모) 5(190), 조은조(54 임정훈 모) 2(28), 주옥자(54 임두현 모) 10(190), 홍성은(54 홍동민 부) 1(222), 서원수(55 서지찬 부) 2(52), 유현구(55 유경운 부) 1(116), 정원섭(55 정준영 부) 2(107)

▶ 4학년 생도 학부모

김경한, 김왕기, 김원태, 김중기, 고경욱, 맹현주, 송혜선, 정민호, 신윤영, 정희숙

▶ 3학년 생도 학부모: 임승찬, 최만석, 오유미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홈페이지(www.kaayf.or.kr)에서 기부액 확인 가능합니다

■ 졸업생(개인) 참여현황 기간 중 기부자가 없는 경우가 수표시 않습니다.

- ▶ 1기 김용하 2(122), 남훈조 20(1,167), 이기권 1(554), 임관택 2(66), 전수천 2(83), 최익환 2(68)
- ▶ 3기 김태성 10(140), 한만우 1,000(9,000)
- ▶ 5기 김영찬 2(109), 김일순 10(375)
- ▶ 9기 김용채 2(24), 권영호 5(325), 김현기 5(1,143), 윤지환 3(99), 최병학 5(1,160)
- ▶ 14기 김종환 2(42), 배의호 20(20), 안호 20(1,680), 이순진 20(639), 이용진 10(180), 하병욱 1(355)
- ▶ 15기 김성언 110(511)
- ▶ 16기 원홍규 30(260), 이종우 1(145), 황병태 4(230)
- ▶ 18기 구연덕 21(115), 금용백 6(528), 변윤웅 100
- ▶ 19기 이경희 1(158), 이종형 2(223), 이창호 6(534), 홍성식 2(183)
- ▶ 20기 김윤희 1(52), 박권순 1(133), 조길상 2(62), 황인권 10(425)
- ▶ 21기 신철수 2(1,006), 장달수 2(93)
- ▶ 22기 권순태 2(38), 이진성 2(246), 정경호 2(30), 조태환 2(122), 홍성덕 10(181)
- ▶ 23기 김창수 4(212), 김태일 2(215), 배요식 2(228), 신영찬 2(58), 오승욱 2(234), 이윤채 100(201), 정철재 4(108), 허강수 2(257)
- ▶ 24기 김지영 4(655), 박종만 4(24), 권금락 4(256), 권오봉 1(199), 김도협 2(218), 남용구 4(250), 모경원 2(213), 박세철 2(57), 방성태 2(67), 안인준 1(80), 이은휘 2(81), 정정현 2(177)
- ▶ 25기 김남용 2(120), 문봉성 1(137), 손영기 4(118), 이은전 5(20), 이종현 2(37), 장광선 6(336), 장무수 2(35), 전희준 2(291), 조재희 2(109), 홍은표 1(186)
- ▶ 26기 고창준 5(138), 신충인 2(169), 이완주 2(101), 이태인 4(34),

- 임우영 2(230), 장용빈 4(102), 홍순범 2(196)
- ▶ 27기 김성오 2(2), 김덕중 2(54), 김지덕 2(8), 김호복 8(201), 석수열 1(30), 안병욱 2(155), 이희순 1(225), 원희문 10(175), 정월균 2(13)
- ▶ 28기 권승영 1(17.5), 권양철 2(94), 김진길 2(66), 김창현 2(153), 박기수 2(77), 박용섭 4(145), 서청수 2(158), 유정일 1(22), 윤석찬 1(126)
- ▶ 29기 김강식 2(231), 김용식 2(60), 김태영 2(2), 박성훈 2(139), 박태용 2(118), 이상일 2(174), 이의규 2(101), 임성호 2(150), 최인섭 2(112), 최준호 2(6), 현태식 2(136)
- ▶ 30기 김백중 1(22), 김종권 1(69), 김효성 2(30), 남진오 2(41), 이병길 2(5), 이진 1(134), 임상달 2(105), 주경호 2(99), 홍성범 2(23), 함민호 2(86)
- ▶ 31기 권동호 4(32), 김민식 4(70), 김영태 2(167), 김희엽 1(211), 박서호 2(6), 염항수 2(122), 이재춘 2(196), 이훈복 2(34), 최대집 2(32), 전경인 2(19)
- ▶ 32기 권관덕 6(233), 김화용 1(98), 이태현 2(34)
- ▶ 33~57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에서 확인바랍니다. 지면제한으로 부득이 모든 기부자 명단을 기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양해 바랍니다.

학교발전기금 참여 안내

■ 기부참여 계좌 :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 (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세금정산용 기부영수증 발급 및 기타문의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예비역 대장 박종진 장군, 발전재단기금 신임 이사장 취임

지난 5월 22일 학교발전재단은 본교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前 1군사령관 박종진 예비역 대장(3사 17기)을 학교 발전기금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 및 임명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학교발전과 기금조성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왔던 김현기(14기) 4대 이사장과 하병욱(14기), 김성언(15기), 박두강(24기) 등 3명의 이사가 퇴임하고, 변윤웅(18기), 장활석(21기), 김지영(24기) 신임이사가 새롭게 취임하였다. 특히, 이사장 후보로 추천되었던 박종진(17기) 예비역 대장은 참석 이사 만

장일치로 제5대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재단발전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한편 이날 5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박종진 예비역 대장은 "선대 이사장님을 비롯해 재단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임원들과 학교발전을 위해 참여해주고 고마운 기부자들 덕분에 본교 발전재단이 어엿한 중견재단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면서 "앞선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재단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취임한 이사들은 2023년 6월 1일까지 이사로 발전재단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 학교발전재단임시이사회가 끝난 후 학교 주요직위자를 비롯한 전임·신임이사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참여자의 소중한 정성은 학교발전과 국방우수인재 양성에 큰 힘이 됩니다”

박종진 대장은 1980년 3사 17기로 임관한 후, 전·후방 각급 부대에서 지휘관 및 참모를 역임하였으며 장군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제37보병사단장, 제6군단장, 10전군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을 역임하고 2018년 12월 예편했다.

